



BMW 뉴 X5 xDrive40e



BMW 뉴 740Le



BMW 뉴 330e



BMW 뉴 M2 쿠페



BMW 뉴 X4 M40i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수입차 시장 1위 자리를 지킨 BMW코리아가 올 하반기에 압도적인 연료 효율성을 자랑하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와 고성능 M모형을 앞세워 수성에 나선다. 사진제공 | BMW코리아

BMW의 야심작 PHEV·M모텔 뜬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고성능 시리즈)

하반기 신차 5종 대거 출시 '수입차시장 1위 굳히기'

BMW코리아가 하반기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와 고성능 M모형을 대거 출시하며 수입차 시장 1위 굳히기에 나선다. BMW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입차 시장 1위 자리를 고수해왔다. 하반기 출시 예정인 X5 xDrive40e, 740e, 330e 등 3종류의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은 압도적인 연료 효율성을 앞세워 국내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시장을 리딩해 나갈 전략 모델이다. 또한 모터스포츠에서 얻은 경험을 집중시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발휘하며 브랜드의 가치와 충성도를 높여주고 있는 2대의 고성능 M모형도 새롭게 선보인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BMW 뉴 X5 xDrive40e

BMW X5 xDrive40e는 전기차 브랜드인 BMW i가 아닌 BMW 브랜드에서 출시된 최초의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스포츠 액티비티 비하클(SAV) 모델이다. 인텔 리전트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인 xDrive와 BMW의 이퍼션트 다이내믹 eDrive 기술이 합쳐져 감각적인 스포츠 주행성능에 효율성까지 겸비했다.

BMW 트윈 파워 터보 기술과 최첨단 BMW eDrive 구동 시스템 그리고 4기통 가솔린 엔진이 장착되어 있으며 최대 출력은 313마력이다. 최대 토크는 가솔린 엔진은 35.7kg·m, 전기 모터는 25.5kg·m를 발휘한다. 연비는 유럽기준으로 30.3km/l,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77g/km(EU의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 테스트 기준)이다.

특히 최상의 효율성을 구현하는 BMW의 eDrive 기술이 탑재되어 배출 가스 걱정이 없는 전기 구동력과 더불어 스포츠 액티비티 비하클 분야에서 완전히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또한 BMW i 시리즈의 기술과 노하우를 집약시켜 플러그인하이브리드의 주행력과 감성을 BMW 브랜드에서도 최초로 경험할 수 있다.

●BMW 뉴 740e

BMW 뉴 740e는 뉴 7시리즈에 eDrive 기술을 접목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장착했다. 혁신적인 럭셔리 세단 모델이다. 향후 BMW 740Le(통 휠 베이스)로 출시될 예정이며, 지능형 사륜구동 장치인 BMW 740Le xDrive 모델도 함께 출시된다.

뉴 740e는 4기통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의 조합으로 326마력의 출력을 발휘한다. 유럽기준 복합연비는 47.6km/l, 복합 전기 소비량은 12.5kWh/100km,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9g/km(잠정 수치)이다. 전기 구동 시스템은 고전압 리튬이온 배터리를 에너지 공급받으며, 역동적인 가속력이 필요할 때 엔진에 강력한 부스트를 더해준다.

BMW eDrive 기술을 활용해 순수 전기 모드로도 주행이 가능하며 최고 120km/h, 최대 40km 거리를 배출가스 없이 무공해로 주행할 수 있다.

●BMW 뉴 330e

2016년 출시 예정인 뉴 3시리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BMW 뉴 330e는 연료 효율성에서 새로운 장을 연 모델이다. BMW 그룹의 최신 엔진 세대에서 가져온 2.0리터 가솔린 엔진과 80kW의 전기 모터를 장착해 최대 출력 252 마력, 최대토크는 42.8kg·m를 발휘한다.

애플은 하반기에 아이폰7을 공개하

BMW 하반기 출시 신차 리스트

모델명	특징
뉴 X5 xDrive 40e	PHEV
뉴 330e	PHEV
뉴 M2 쿠페	고성능 M 모델(가솔린)
뉴 740e	PHEV
뉴 X4 M40i	고성능 M퍼포먼스 모델(가솔린)

최고 안전제어속도는 225km/h이며 제로백은 6.3초. BMW 뉴 330e의 평균 연료소비량은 유럽기준 복합연비 47.6~52.3km/l이며,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9~44g/km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순수 전기모드로는 최대 35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BMW 뉴 M2 쿠페

BMW 뉴 M2 쿠페는 한눈에 BMW M의 정체성을 알아볼 수 있는 역동적인 디자인을 갖췄다. 대형 공기흡입구가 적용된 낮은 프론트 에이프런, 특징적인 M 브리더가 적용된 두꺼운 측면부, 친숙한 M 더블 스포크 디자인의 19인치 알루미늄 휠, M 특유의 트윈 테일 파이프 배기 시스템이 적용된 낮은 후면부 등 모두가 BMW 모터레이싱 역사를 빛낸 모델들로부터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다.

BMW 뉴 M2 쿠페에 적용된 새로운 3.0리터 직렬 6기통 엔진은 최첨단 M 트윈파워 터보 기술로 6500rpm에서 370마력을 발휘한다. 이를 통해 고성능 콤팩트 스포츠카 부문에서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동력 전달 능력도 뛰어난 오버부스트를 통해 47.4 kg·m의 최대토크를 일시적으로 51.0kg·m까지 증폭시킬 수 있다. 또한 옵션 품목인 7단 M 더블클러치 변속기(M DCT)와 런치 컨트롤을 탑재하면,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단 4.3초가 걸린다. 최고속도는 250km/h에서 전자식으로 제한된다.

●BMW 뉴 X4 M40i

BMW 뉴 X4 M40i는 새롭게 개발된 3.0리터 6기통 M 트윈파워 터보 엔진을 장착해 5800~6000rpm 사이에서 최대 출력 360마력, 최대 토크 47.4kg·m를 자랑한다. 안전 최고 속도는 250km/h, 정지 상태에서 100 km/h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4.9초에 불과하다. 차량의 관에는 페릭 그레이(Ferric Grey) 메탈릭 사이드미러, 울트라 하이 퍼포먼스 타이어나 20인치 M 경합급 더블 스포크 휠, 크롬 블랙 배기구 등을 적용해 X4 M40i 특유의 디자인을 완성했다. 인테리에도 M 가죽 스티어링휠, M 기어 변속 레버, M 스포츠 시트 등이 적용됐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연도	유출사	피해자 수	보상·판결
2008년	옥션	피해자 1000만명	승소판결
2011년	●넥슨	피해자 1320만명	-
2011년	●네이트	피해자 3500만명	-
2014년	●KT	피해자 1170만명 2만8000여명 손해배상 청구소송	▶ 10만원씩 배상 판결
2014년	롯데카드	피해자 2600만명	일부 승소판결
2014년	NH농협카드	피해자 2500만명	일부 승소판결
2014년	KB국민카드	피해자 5300만명	일부 승소판결
2016년	●인터파크	피해자 예상인원 1030만여명 손해배상 청구소송(모집중)	▶ 최소 10만원씩 배상 전망

●해킹정보유출사건 ▶ 배상액 최소 1조원 예상

SKT '3차원 AR·VR 솔루션' 개발

센서·이미지 프로세서 개발사 이뉴이티브와 MOU

SK텔레콤이 화제의 '포켓몬 고' 같은 증강현실(AR) 게임을 3차원으로 실감나게 즐길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나섰다. SK텔레콤은 이스라엘 센서 및 이미지 프로세서 개발사 이뉴이티브와 3차원 실감형 AR·가상현실(VR) 솔루션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SK텔레콤의 AR·VR 플랫폼 'T-Real'과 이뉴이티브의 3차원 센서를 융합하면 디바이스가 동작이나 사물, 공간 등을 입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포켓몬 고 등 기존 AR 게임이나 서비스의 콘텐츠 표현 방식이 평면적이었던다면, 이를 360도의 고품질의 콘텐츠로 표시해 차원이 다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양사는 실생활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모바일 등 소형 디바이스를 위한 솔루션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명근 기자



리우올림픽 중계, KT가 책임진다! 2016리우올림픽의 안정적인 중계를 위해 한국-브라질 간 국제방송중계망을 구축하고 27일 서울 광화문사옥에서 개동식을 연 KT 임직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 | KT

코베아 '퀀텀III' 사면 블루투스 스피커를?

글로벌 캠핑레저기업 코베아가 신제품 퀀텀III 출시를 기념해 블루투스 스피커 증정 이벤트(사진)를 연다. 퀀텀III는 코베아의 베스트셀러 텐트인 퀀텀 폴드를 업그레이드한 제품이다. 자립형 대칭구조로 변형설계해 안정적인 텐트의 앞면과 뒷면에 2개의 이너텐트를 설치해 최대 8명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전용 커튼도 제공한다.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매장에서 퀀텀III를 구매하면 추첨을 통해 캠핑할 때 사용하기 좋은 블루투스 스피커(LG포터블 스피커)를 10명에게 증정한다.



양형모 기자

와이즈교육 시간선택제 교사 "효과 만점"

어린이 창의력 개발 교육제인 와이즈블록과 두뇌개발 생킹트레인, 교과통합형 논술토론학습지 와이즈윌리의 전국 홀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와이즈교육이 시간선택제 논술교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논술교사 지원인력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시간선택제도는 교사가 근무하기 편한 시간대를 골라 초등학생 논술지도를 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올리는 제도이다. 급증하는 회원 수에 비해 교사가 부족해 고민하던 와이즈교육은 2년 전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대졸 청년층을 대

상으로 시간선택제도를 도입했다. 지원생에게는 이 회사 부설 한국통합원격평생교육원의 통합논술지도사 자격증 취득과정을 무상으로 수료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의 이러한 노력과 투자가 결실을 보고 있는 것. 와이즈교육은 중일제 또는 시간선택제 홀스쿨 교사로 활동함은 물론 대학 입시공부 공유, 방과후교사 진출 등의 부수효과를 얻을 수 있어 지원인력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형모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위기의 애플 "아이폰7, 너만 믿는다"

2분기 연속 전년 대비 감소

애플의 분기 매출이 2분기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다. 아이폰의 판매량 부진도 계속됐다. 천하의 애플에 대한 위기감이 현실화 되고 있다. 반면 지난 분기 증권가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치로 선방했다는 평가와 함께 하반기 아이폰 7을 선보이며 반전의 기회를 잡을 것이라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애플은 지난 2분기(애플 회계연도 3분기) 424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5% 감소한 수치다. 순이익은 78억 달러로 27% 줄었다. 13년 만에 분기매출이 줄어든 직전 분기보다도 저조한 실적을 냈다. 애플은 지난 1분기(애플 회계연도 2분기) 506억 달러 매출과 105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 2분기 애플이 부진한 실적을 낸 이유는 계절적 비수기인 데다 아이폰의 판매량 감소가 겹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애플의 2분기 아이폰 판매량은 총 4040만대.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량인 5100만대에서 15% 줄어든 수치다. 1분기 아이폰 판매량인 5120만대보다도 적다. 3분기에도 애플의 매출은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3분기(애플 회계연도 4분기) 매출 전망치를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455억~475억 달러로 내놨다.

애플은 하반기에 아이폰7을 공개하

면서 반전의 기회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아이폰 신제품을 9월경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아이폰 단자를 없애는 디자인과 강화된 카메라 성능 등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증가가 제풀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고,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인 삼성전자가 내달 초 신제품 갤럭시노트7을 공개하며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